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개최

의정부문화재단, 29일~30일 의예전 일원
문화·정책·예술 시민참여 프로그램 구성

의정부문화재단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의정부예술의전당(의예전) 일원에서 제3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과 축제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형 축제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는 ‘정책’은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닌 우리의 삶과 일상에 맞닿아 있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화형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문화도시 의정부 특성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제1회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 박람회’ 지역문화 우수사례대회에서 사업계획의 독창성과 성과 및 완성도, 지속가능성, 지역문화 기여도 등 5개 평가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올해 세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정책페스타는 ‘소통과 화합, 그리고 의정부 BE IN HARMONY’라는 주제로 ▲문화도시락(樂)▲정책마켓 ▲로컬 줌-인▲로컬 줌-아웃 등 4개의 주요 섹션 아래 총 1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책페스타의 오프닝은 오는 29일 ‘문화도시락(樂)’ 프로그램으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진행된다. 첫 번째 순서인 토크콘서트 ‘정책카페’에서는 지역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문화 바리스타’가 돼 지역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발표하며 관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어지는 축하무대에서는 실력과 뮤지션 10CM(십센치)가 무대에 올라 화려한 공연으로 정책페스타의 개막을 알릴 예정이다.

29~30일 양일간 펼쳐지는

정책페스타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정책마켓’은 ‘정책마켓부스’, ‘정책어워드’, ‘청소년 도시메이커스’ 등 시민들이 직접 만든 정책을 사고파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의정부예술의전당 대·소극장 로비에서 열리는 ‘정책마켓부스’에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30개의 정책 부스를 만나볼 수 있다. 그중 우수한 정책을 시상하는 ‘정책어워드’와 지역의 청소년들이 도시를 바꿀 재미난 상상과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청소년 도시메이커스’도 함께 진행된다.

의정부예술의전당 내 위치한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지역역사 문화포럼에서는 “지역역사문화를 품은 특화콘텐츠, 지역정체성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중요성과 특화콘텐츠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제와 지역문화 콘텐츠화의 실천과 담론 확장에 대한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30일 명사 특강 프로그램 ‘사유의 바다’에서는 한국사 강사 ‘최태성’이 〈왕의 도시, 의정부〉를 주제로 의정부가 품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와 함께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는 예술에 일상을 더한 문화시장 ‘아르츠마켓’이 개최된다.

아르츠마켓은 의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및 소상공인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 창작자와 예술작가를 연계해 교류할 수 있는 문화시장을 열어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와 문화체험 등으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먹거리뿐 아니라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를 마련했으며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줄 물놀이장도 함께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

또한 기획전시 ‘왕조의 문을 열다-태조·태종의 복식문화展’ 등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축제의 볼거리를 한층 다양화했다.

박희성 의정부문화재단 대표는 “올해로 3회를 맞은 정책페스타가 ‘정책’과 ‘축제’의 결합이라는 컨셉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의정부를 위해 시민 스스로 문화정책 분야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sinnews7@newsipm.com



▲2025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안내문. (사진=의정부문화재단)



▲파주도시관광공사는 파주경찰서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했다. (사진=파주도시관광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 물놀이장 불법촬영 단속

시민 안전·사생활 보호 위해...파주경찰서와 합동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운영 어린이·가족 물놀이장과 문산 어린이 물놀이장에서 파주경찰서와 함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13일 이틀간 진행됐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물놀이장 내의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공간에 중점을 두고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공사 물놀이장 운영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용률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석 기자



올해 영농 대행 기간은 다음달 22일부터 수확이 끝날 때까지이며, 사전 예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작업 일정을 배정한다.

사전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6일간 진행되며 농기계 대여은행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경작 증명서(이·통장 확인) 등 경작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콤바인이나 콩 콤바인을 보유한 농가나 해당 작목반 소속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신석호 기자

광복 80주년 임시정부 요인 후손 위문

경기북부보훈지청, 8월의 6·25영웅 선정패 전달

경기북부보훈지청은 14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요인들의 후손을 찾아 위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에는 손순욱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이 직접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위문 대상자는 ▲이시영 선생의 손자 이종문 씨▲지청천 장군의 손녀 지중남 씨▲이희경 선생의 외손자 김경호 씨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이시영 선생은 을사조약 체결 이후 비밀결사 신민회를 조직해 구국운동을 전개했고 경술국치 뒤 가족 50여 명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 이후 경학사·신흥강습소 설립을 주도해 독립군 양성에 힘썼다.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지청천 장군은 신흥무관학교 교성대장으로 재직하다 1920년 김좌진 장군과 함께 대한의용군을 조직, 여단장으로 활약했다. 이후 무장독립운동을 이끌었다.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이희경 선생은 하와이에서 병원을 개설해 애국지사들을 지원하고



광복운동을 전개했으며, 독립운동 외교 활동에 힘썼다.

손 지청장은 “광복80주년을 맞아 후손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수확철 영농대행 신청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가을 수확철을 맞아 콤바인과 콩 콤바인을 투입해 영농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